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4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재))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KBS 뉴스광장 50 인강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굿모닝 A	25 아침이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땀> 40 여유만만	00 MBC 생활뉴스 45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닝생활제(재)	5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러브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부부극장 공각지(재)	00 KBS 뉴스12	00 MBC 청오 뉴스 20 TV 속의 TV	00 SBS12뉴스 30 KBS 열린토론회(재)
1	40 뉴스 추적자	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00 KBS 뉴스타임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30 피자만들레
2	50 직업직실		00 SBS12뉴스 10 네트쿠릭 현장 고향이 보인다(울산)	00 SBS 뉴스 10 네트쿠릭 현장 고향이 보인다(울산)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두리몽실 뽀개공룡(재) 40 TV 유치원 공룡(재)	10 소치 2014 패럴림픽 하이라이트
4	00 박중진의 뉴스쇼 캐드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원전정복> 55 튜닝 생활제(재)	25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야 55 엄마가 있는 풍경 미미도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05 다큐로만는 세계 베스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질기운 말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오마이베이비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 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극대 55 문/화/신/책 포플러	00 월화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00 월화 드라마 <피땀만 말하라>
11	00 혼자 사는 여자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30 웰컴 투 시월드(재) ①:40 혼자 사는 여자 스페셜 (재)	30 문화 책갈피 ①:10 T타임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갈라쇼 <아틀란티스-문명의 정남)>	15 MBC 뉴스24 45 유디타임 사람이 좋다 스페셜

EBS

05:40 나의 성공비결	09:40 부모(아이)를 위한 식단	14:45 미연미로봇	19:30 EBS 뉴스
06:10 EBS 특별기획 정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재)	10:10 EBS 문화 센터	15:00 초능력 특대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홍사>(재)
07:0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필리핀)(재)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오스카의 오아시스	20:50 세계테마기행 (일본)
07:30 풍성 꼬끼리 발루보(재)	12:10 EBS 스페셜 공감1(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30 한국기행 (남도갯길)
07:45 뽀뽀뽀 발루보(재)	13:05 지식세발레	16:45 콤피와 친구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위대한 로마>
08:00 뽀뽀뽀 유채원	13:1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00 방귀대장 풍뎡이(재)	22:45 달리자
08:20 두디대(재)	13:20 외곽외교 친구들	17:15 풍성 꼬끼리 발루보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8:35 방귀대장 풍뎡이	13:30 꼬따 가사 마이크	17:30 뽀뽀뽀 보로로	24:05 지식세발레(재)
08:50 콤피와 친구들	13:45 치료와 친구들	17:45 바이오의 파오파오	24:10 EBS 특별기획 <정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재)
09:05 바이오의 파오파오(재)	14:00 헬로 코로롱	18:00 생방송 퓌! 퓌! 보나하니	01:00 EBS 걸작 다큐멘터리(재)
09:20 부릉! 부릉! 브루미즈(재)	14:15 시계마을 티키펍	19: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재)	
09:35 빠곰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EBS플러스1

00:00 알짜 귀여운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00:50 2013 논구술 <인문계 주제별 기술분석>	12:10 5분 과탐-물리 I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13:05 " <수학 I A형>
02:30 " <수학 I>	14:00 " <국어 A형>
03:20 뉴 틸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한국사>
04:10 " <사회>	15:40 " <동아시아사>
05:00 " <생활과 윤리>(재)	16:30 " <세계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7:20 " <세계지리>
06:40 압축틸스런 <물리 I>	18:10 " <법과 정치>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 <생활과 윤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재)	19:50 5분 과탐-물리 I (재)
09:10 " <수학 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A형>(재)
10:00 뉴 틸스런 <사회>(재)	21:00 " <한국사>(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22:00 " <동아시아사>(재)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중개사 시험대비전	15:20 만점왕 <국어③-1>
07:30 나의 성공비결	15:40 " <국어④-1>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6:20 " <국어⑤-1>
08:30 점점고시 강좌	16:40 " <국어⑥-1>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20 초등 개념 집기 <국어>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50 스물셋(재)
09:50 " <수학①(상)>	18:00 TV 중학 <문학③>
10:30 " <역사①>	18:40 " <비문학③>
11:10 " <국어③④>	19:20 배움 플러스 <국어>
11:50 " <수학③(상)>	19:30 중학과학 자유탐구 <영어>
12:30 탐입선공 <수학④(상)>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영어>
13:10 " <수학④(하)>	20:40 " <영어>
13:50 " <과학③(상)>	21:20 " <과학>
14:30 " <수학②(상)>(재)	22:00 " <수학>
15:10 스물셋	22:40 TV 중학 <수학④>(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4일(음 1월 25일 丙寅)

子	36년생 기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잘 살펴볼 일이다. 60년생 구체적인 윤곽이 보인다. 72년생 지금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84년생 지체하지 말고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61, 07	午	42년생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느니라. 54년생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66년생 의지가 굳건하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일관된 소신에 따른 노력의 경주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13
丑	37년생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가락이 잡혀졌다. 49년생 지나 치면 오히려 이색해진다. 61년생 허심탄화한 의견개진에 절실하다. 73년생 맺음을 확실하 하자. 85년생 객관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82	未	43년생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민반의 준비가 요청된다. 67년생 형성 단계이니 여유를 갖고 대처하라. 79년생 커다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7, 48
寅	38년생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된다. 50년생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 62년생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4년생 일관성 있는 가치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5, 96	申	44년생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 하자. 56년생 분류와 분배에 따른 묘미가 있다. 68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80년생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애가 타겠다. 행운의 숫자 : 85, 37
卯	39년생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가끔씩 노출하지 않음이 상책이 아니라. 63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은 이기는 법이다. 75년생 발상을 달리한다면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8, 25	酉	45년생 참신한 타계책을 강구하게 되리다. 57년생 접근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소비적이다. 69년생 잠시 힘든 형세가 될 수도 있으나 영향력은 약하다. 81년생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훨씬 많겠다. 행운의 숫자 : 74, 54
辰	40년생 의도대로 진행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52년생 기대해도 좋은 상황이나 노과심은 버려도 된다. 64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여도 좋다. 76년생 좀 늦더라도 제대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53, 98	戌	46년생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58년생 조절과 균형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70년생 염두에 두지 않으면 모순이 반복될 것이다. 82년생 아귀워하지 말고 미련을 버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4, 63
巳	41년생 타당성 여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느니라. 53년생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다. 65년생 숨어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곤란하다. 77년생 형식적인 것을 의식한다면 생산성이 저하된다. 행운의 숫자 : 36, 80	亥	47년생 잘 되어 갈 것이니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59년생 방법은 여러 가지이니 다양하게 도모해 보자. 71년생 유무에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83년생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3,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

“저희가 지닌 모든 것 보여드릴게요”

두번째 정규 앨범 컴백, 두번째 월드 투어 나서는 그룹 투애니원



“월드 투어 명칭이 ‘올 오어 나심’(AON, ALL OR NOTHING), 한국어 말로 ‘모 아니면 도’잖아요. 6년차인데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도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닌 것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씨엘)

그룹 투애니원(사진)이 20일 오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월드투어 ‘AON’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의 두 번째 월드투어를 앞둔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투애니원은 오는 3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12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을 한다. 총 관객 20만 명 규모다.

투애니원은 2012년에도 유명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첫 월드투어 ‘뉴 에볼루션(New Evolution)’을 펼친 바 있다. 이 공연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2 베스트 콘서트’에도 꼽혔다.

“이번 투어에서 여성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보이며 고민했어요. 그 목표에 맞춰 공연이 짜여졌죠. (포스터의) 우주 컨셉트는 인간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골랐어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씨엘)

월드투어에 앞서 투애니원은 오는 26일 밤 12시 정규 2집 ‘크러시’ 음원을 공개한다. 4년 만의 정규 앨범이자 신곡으로만 채워진 첫 앨범이다. 월드투어가 새 앨범의 무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이번 앨범에는 멤버 씨엘의 자작곡 세곡이 담겨 관심을 모았다.

씨엘은 “사실 노래를 앨범을 위해서 만들지도 않았고, 정말 앨범에 실릴 줄도 몰랐다”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서 그냥 만

들어왔는데 (앨범에 실려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있다”고 고백했다.

씨엘의 곡에 대해 다른 멤버들은 “굉장히 놀랍고 신선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특히 산다라박은 “씨엘이 멤버의 개성을 잘 끄집어내 노래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크러시’를 부르며 6년만에 처음 들어보는 내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투애니원의 이번 컴백은 그룹 소녀시대와 우연하게 활동 기간이 겹치면서 국내 대표 걸그룹 간의 ‘정면 대결’로 많은 팬의 관심을 끌었다.

산다라박은 “오랜만에 소녀시대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 많이 기대하고 있다. 다른 색을 가진 팀이라 그분들의 음악도 기다려

진다”고 차분하게 답했다.

공민지도 “저희는 정해진 저희 입장을 진행할 뿐”이라며 “그분들 역시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앨범이라 어떤 매력과 개성을 선보일지 고민했다. 저희만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월드투어를 앞두고 투애니원은 킨텍스 전시장에 최근 실제 공연장과 같은 무대 세트를 설치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공연 준비는 두 달 가까이 진행했다.

연출자인 페인은 “바쁘든 요점처럼 사랑스럽다. 씨엘은 겸손하고 노력하면서 자신감이 돋보인다. 민지는 무대 위에서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대단한 춤꾼이다. 다리는 ‘펑크’가 가미된 천사다(웃음)”라고 평했다.
(연철뉴스)

혜은이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29일부터 전국 대도시 순회



1970~80년대 큰 사랑을 받은 가수 혜은이(58·사진)가 데뷔 4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을 연다.

소속사 BS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혜은이는 다음 달 29~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시작으로 대도시를 돌며 ‘혜은이 리사이틀’이란 제목으로 무대에 오른다.

또 공연 전 신곡을 발표하고 이 곡을 무대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1975년 “당신은 모르실게야”로 데뷔한 혜은이는 1977년 임제진 주연 영화 ‘진짜 진짜 좋아해’의 동명 주제곡을 히트시켰으며 ‘감수광’, ‘제3환강교’, ‘뽀뽀뽀’, ‘그대와 돌아서’, ‘당신만을 사랑해’ 등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았다.

또 배우로도 활약해 ‘제3환강교’(1979), ‘맛대로 해라’(1980) 등의 영화에서 주연으로 출연했고 2009년에는 KBS 해피FM ‘혜은이, 전현우의 오정어’를 진행하며 데뷔 이래 처음 라디오 DJ에도 도전했다.

혜은이는 데뷔 40년을 맞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인 만큼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직접 연출을 맡아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팬들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음악, 여러 세대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진행되며 문의 1599-7813.
(연철뉴스)

TV 하이라이트

왜소증 가족의 서커스 유랑단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다 같은 마음일 터. 때로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뜻하지 않은 아픔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있다.

신장 125cm의 김명섭(68)씨. 그는 정상인 부모님과 형제를 사이에서 유일하게 왜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서커스단에서는 열혈단원으로, 집에서는 두 딸의 아버지로 동봉서주했던 명섭씨. 두 딸이 그를 닮아 왜소증을 갖고 태어난다면 아이들의 친 엄마가 집을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현재로 자란 두 딸과 함께 ‘작은 개인 예술단’이라는 우리나라 최초 가족 서커스 유랑단을 꾸렸다.

14개 시군 2500km 남도 갯길



한국기행(EBS·밤 9시30분)은 남도 갯길을 전남 영광에서 시작해 광양까지 이어지는 2500km 구간을 일컫는 말이다. 이 길에 포함되는 지역은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순천, 여수, 광양 총 14개 시·군으로 우리나라 전체 갯길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곳이다.

골짜기 심한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남도 갯길은 겨울에도 풍부한 먹을거리를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길목이기도 한 그곳, 남도 갯길을 함께 거닐어본다. 24일에는 영광과 무안, 함평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함평만을 찾는다. 이곳은 수많은 생명의 서식지이자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함평 석창리 갯마을은 갯벌 바닷에서 석화가 자라는 독특한 곳이다.

한국 첫 신민요 가수 김세레나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은 1965년 동아방송(DBS) 노래자랑 프로그램인 ‘가요백일장’에서 여고생 신분으로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혜성처럼 등장한 김세레나. 1969년 첫 음반을 발표하며 정식으로 데뷔한 그녀는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뛰어난 미모와 화려한 무대매너를 갖춘 그녀는 한국 최초의 비디오형 신민요 가수였다. 그런 그녀의 등장은 사그라지던 신민요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국악계의 이단아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지만 깨끗하게 신민요를 지켰은 그녀. 그녀의 청아하고 리듬감 있는 목소리, 노래에 대한 애정은 민요의 맥을 잇는 유일한 스타로 만들었다.